

직장인의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¹⁾

김종모²⁾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은퇴 후 삶의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조사대상자인 직장인 개인적 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장인의 재무교육의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직장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 대한 만족예측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높아지는 결과는 남자에서 여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인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교육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미소유자에서 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덟째, 재무교육이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교육인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은퇴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하고, 은퇴 후 생활의 만족예측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교육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의 제고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핵심단어 : 노후생활인식, 재무교육, 재무상담,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

1) 이 논문은 김종모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푸르덴셜생명 웰스매니지먼트센터 웰스매니저, E-mail: jmmash@hanmail.net

I. 서론

최근 발표한 OECD 보고서³⁾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실질적 은퇴연령, 즉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나이가 한국의 남성이 71.1세, 여성이 69.8세로 OECD 평균(남성은 64.2세, 여성은 63.1세)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퇴직 후에도 실질적 은퇴를 위하여 10~11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실하여 퇴직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하듯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은퇴와 관련한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 및 베이비부머와 관계가 깊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들의 ‘썰물 은퇴’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퇴직하고 노인 인구로 편입함으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⁴⁾ 은퇴 관련 연구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예비은퇴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은퇴와 관련한 선행연구조사 실시한 결과, 많은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은퇴 전 직장인 및 가계의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은 은퇴 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은퇴 후 경제적 또는 재무적 대책에 대한 준비와 의식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교육, 소득수준 등) 셋째, 은퇴 후 노후대책에 대해 금융, 재무, 재취업 등의 경제적 방안 마련에 관심이 많다. 넷째, 재무설계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상담경험은 경제적 노후대책 방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은퇴의 인식과 은퇴준비, 노후생활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중에는 재무설계와 관련한 “재무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양적연구로서,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 T-test, ANOVA, 공변량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시뮬레이션분석, 패널분석 등이며, 이때 사용된 측정도구는 개인적 특성, 재무교육, 재무행동, 재무상태, 심리요인, 자원요인, 은퇴준비, 삶의 질 등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의 한계로 밝히고 있듯이, 향후 연구의 과제로서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세대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와 근원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질적연구로는 예비은퇴자의 재무상태나 은퇴준비에 대한 현황과 인식조사가 어렵다.

3) OECD, 2012년도 실질적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통계보고서, 2014.6.2.

4) 서울경제 38면 데스크칼럼, 2010.10.29.

둘째, 양적연구를 통해 예비은퇴자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와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변량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교육(상당, 설계)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조사대상자인 직장인 개인적 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재무설계는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재무교육이 노후생활 인식과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 파악해 봄으로써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올바른 재무교육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서술하였고 2장에서는 노후생활인식, 재무교육, 은퇴준비 그리고 만족예측정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과 각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리고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4장에서는 기술통계 결과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고 적합도지수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생활인식

유인순(2012)은 노후에 당면할 수 있는 문제로 무업(無業), 무전(無錢), 유병(有病), 고독(孤獨)의 4가지 문제를 소개하였다. 그가 설명하는 무업(無業)과 무전(無錢)이라는 것은 '경제적 노후준비의 부족'을 의미하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노후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에서 경제적 능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재룡·민주영(2012)은 "노후에 필요한 수입을 월평균 200만원 내외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26.1%는 노후에 100만원 미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병(有病)이라는 것은 노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건강'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2012)도 노후의 건강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노인도 68.3%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여 신체적 건강 약화는 노후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독(孤獨)은 인생의 후반기를 통해 잃어가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의 약화가 자신을 외롭게 한다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김남순(2009)에

의하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인식과 신체적 인식, 정서적 인식으로 나누고 있었
고, 이와 별도로 조추용 외(2009)는 여가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하춘광(2006)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인식 외에도 주거준비 인식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김주성(2010)은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조건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 신체적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적 측면, 역할상실과 소외
감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사회적 측면 등에서의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후생활 인식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김남순(2009)의 정서적 노후생활인
식과 김주성(2010)의 사회적 노후생활인식은 사회적 노후생활인식이 정서적 노후생활인식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노후생활인식은 “노후에 나타
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생활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재무상담(Financial Consulting)과 관련하여 손상희(2004)는 Williams(1989)의 정의를 인용하
였는데, “고객이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자
원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주거결정, 재정 위기의 해결, 신용 및 부
채 관리 등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 재무상담이라고 하였다. 주소현 외(2012)는 2009년 펀드
투자자 조사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
해 자산배분과 계획을 제시해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담,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방법,
노후 설계 방법 등을 들고 있다. 김성숙(2011)은 재무상담은 전통적으로 재무문제가 있는
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가계가 재무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이나 서비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재무상담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있도록 조언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은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재무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는 금융과 관련한 이해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Vitt(2000)는 “물질적(경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재무 일반 사
항에 대하여 읽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창희(2006)는 재무교육을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재 또는 미래의 재무자원·자산·소
득을 생활주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보호·투자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능력
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재무교육의 영역을 개인재무설계기초, 수입과 지출관리,
자산의 보존, 자산의 증대와 투자, 노후설계의 5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1개의 하위영역인
개인재무관리기초, 자금관리, 지출관리, 대출 및 신용관리, 세금관리, 위험관리 및 보험, 저축
투자,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노후설계, 증여와 상속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재무교육에

대하여 최현자(2007)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경제 외 기본적인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제교육’과 가계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개인재무관리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은 ‘개인재무관리교육’ 분야이며, 돈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지적 능력인 재무지식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은퇴준비의 실행을 위하여 재무교육과 재무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과 재무설계의 개념이 재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오종윤, 2011; 이지영, 2011; 주소현, 2008; 권택호, 2010; 차경욱 외, 2008; 백은영 외, 2012; 박창제, 2011). 은퇴준비자에게 실시되는 재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재무설계는 자신의 생애 흐름에 맞춰, 벌어들인 돈과 쓸 돈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재정플랜을 짜서 그 결과를 평가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자금, 자녀 교육자금과 같은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재무교육은 재무설계사 또는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재무교육이나 재무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여 재무교육이라고 하며, 특히 은퇴 준비를 대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재무설계와 교육을 포함하여 은퇴준비 재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은퇴 및 은퇴준비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은퇴는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 직업에서 나오는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Atchley, 1976)라든가, “직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활동을 떠나는 것”(Butrica, 2003)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태현(2007)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익혀야 하는 시기이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업적 역할이 끝났다고 인정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2007)도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송양민·우재룡(2014)은 ‘은퇴하다’를 영어로 바꾸면 ‘retire’로서 다시(re) 타이어(tire)를 갈아 끼우고 은퇴 후 20~30년을 힘차게 살아간다는 개념으로 은퇴란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장은정(2005)이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향후 본격적인 재취업의사가 없어야 한다고 정의하여 주관적 의사와 은퇴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신태·김종숙(1983)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주기 상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은퇴를 개념화 해 보면, 이때의 은퇴는 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은퇴는 개인에게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몰고 오는 위기로도 인식되기도 한다 (Miller, 1965; 윤 진, 1993). 그리고 은퇴는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또는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여 노화와 건강상태의 저하 등의 모든 생활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곽인숙·홍성희·이경희, 2007).

은퇴준비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통계청(2013)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유배우자는 '건강문제(66.0%)', '경제적인 어려움(54.9%)', '소일거리 없음(16.2%)'순으로 나타났고 무배우자는 '건강문제(67.8%)', '경제적인 어려움(59.3%)', '외로움·소외감(26.1%)'순으로 나타났듯이, 실제로 은퇴준비의 구성은 경제적, 신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진다. 즉,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의 경우는 경제적 인식, 신체적 인식, 정서적·사회적 인식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나, 은퇴준비의 구성요인의 경우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비해 사회적 노후준비 영역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강유진, 2005), 은퇴준비의 구성요인은 경제적 은퇴준비와, 신체적 은퇴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은퇴준비와 신체적 은퇴준비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서 먼저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⁵⁾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64세까지 고령층 고용률은 62.1%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7.7% 높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은퇴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신체적 은퇴준비에 대한 학술연구로써 이정화(2009)는 신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혜련(2011)의 경우도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병철(2012)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건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는 은퇴준비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경제적, 신체적, 거주관련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자 한다.

4. 은퇴 후 생활만족

Neugarten(1961)은 생활만족도의 구성 요소로서 첫째, 현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

5)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3. 10.

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둘째, 본인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셋째,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룸으로써 인생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감정, 넷째, 긍정적 자아상, 다섯째,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라고 하였다. 그 이후 Neugarten et al(1968)은 생활만족도를 다시 첫째,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는 것, 둘째,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는 것, 셋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정리하였다. Medley(1976)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진 기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생활만족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Andrew & Withey(1976)는 생활만족도를 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이라고 하였다.

최인근(2008)은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과거, 현재와 미래의 생활, 그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가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성령(2010)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김주성(2010)은 생활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면 삶 자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의 생활만족을 경제적 만족과 비경제적 만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 생활만족의 용어와 노후생활인식 및 은퇴준비의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만족을 재무적 만족으로, 비경제적 만족을 비재무적만족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5. 각 변인간의 영향 관계

1) 노후생활인식과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은퇴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둔 연구는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인간의 행동예측과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Ajzen, 1991). 이런 가정은 Shimp와 Kavas(1984), Bagozzi et al.(1992)의 연구들에서 밝혀졌고, Gibbons et al.(1998)은 행동의 선행 변인을 과거행동, 태도, 기대, 의지라 하였으며 Allen(1992)은 과거경험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이 태도와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문조·전귀연(2004)은 어떤 대상에 대해 태도를 분석하면 그 이후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다고 했고, 홍성희·곽인숙(2007), 차경옥 외 2인(2008)은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계획에 따른 준비수준이 높거나, 은퇴 재무설계가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정운영·백은영(2009)은 은퇴 인식 및 태도가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개인적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준비는 사회복지구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였다. 인식과 태도는 은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강정애, 2013).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2013)에 따르면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이 2011년도 10.2%에서 2013년도 8.8%로 1.4%p 감소한 반면 노후준비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방법⁶⁾이 2011년도 36.5%에서 2013년도 38.6%로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상담, 설계)

은퇴설계와 관련하여 백은영(2011)은 은퇴준비행동 자체와 은퇴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연구의 틀로 삼았으며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세 가지 주요 요인⁷⁾이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정운영·백은영, 2013). 강신기(2013)는 재무교육은 부모세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필요하며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있어 은퇴 후 삶은 매우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교육의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재무적인 자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 행동의 이해, 가치관, 삶의 목적 등 비재무적 자원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년 정기예금금리가 2013년 연 2.89%로 10년 전인 2004년 연 3.87%보다도 무려 1% 가까이 낮아졌다⁸⁾. 기준금리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연 5.25%를 최고치(2008년 8월 7일)를 기록한 후 하향추이를 보였고 지난 2013년 5월 9일 2.75%에서 0.25%를 인하한 후 2014년 7월 현재까지 2.5%로 동결중인 상태이다.⁹⁾ 만약 현재 30세가 60세에 은퇴하여 90세까지 30년간 근로소득 없이 현재가치로 매월 250만원으로 노후생활을 할 경우 은퇴를 맞이하는 60세 시점에서 필요한 예상 은퇴 총 필요자금은 정기예금금리 연 3.87%, 소비자물가상

6)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운용

7) 태도로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나 일반적인 느낌정도, 주관적인 규범으로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에 대해 인지된 주관적 압력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자원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신규취급액 기준

9)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승률 연 1.5%¹⁰⁾을 적용할 경우 10억 2,600만원이 필요하지만 정기예금금리를 연 2.89%를 적용할 경우에는 11억 6,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정기예금금리의 연 1% 차이가 은퇴 총 필요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또한 정기예금금리를 연 3.87%를 적용할 경우 은퇴생활을 하기 위해 30년간 매월 적립해야할 금액이 매월 151만원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를 연 2.89%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월 203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52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야한다.

<표 2-1>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 총 필요자금 및 월 투자적립금액 비교

예금금리	은퇴 총 필요자금	월 투자적립금액
연 3.87%	10억 2,600만원	151만원
연 2.89%	11억 6,300만원	203만원

주1)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1.5% 가정 (향후 변동 없음)

주2) 투자기간 30년 가정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금리의 변화는 향후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한 매월 적립금액은 물론 적립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마다의 이자율 또는 수익률에 따라 매월 적립해야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적 상황으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함은 물론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으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재무교육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후생활인식과 은퇴 후 생활만족

사물을 인지하고 식별하며 기억 사고하는 작용 및 결과를 인식(awareness)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두 이론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서도식, 2006). 첫째, 선천주의를 대표하는 데카르트는 인식의 기본 요소를 '진리의 씨앗'으로서 우리의 정신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며, 둘째, 로크, 흄 등이 제시한 경험주의는 선천적인 관념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정신을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로 보았다. 즉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경험, 다시 말해서 감각에 주어진 것들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식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든 인간의 행동과 생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노후생활인식과 관련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인 용인에 대한 연구로써 이선미(1991)는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1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2014.5.21.)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예금금리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변동이 없음을 가정으로 하여 조정이율(K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기타준비자금은 고려치 않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노년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임경자(2002)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노후준비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가 잘 된 사람은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성희 외(1998)의 노후생활의 만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이 생활만족도와 노년기의 적응에 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은퇴준비와 은퇴 후 생활만족

Dowd(1980)의 자원이론(Resource Theory)에서와 같이 노인이 가진 자원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많이 가진 노인이 상대적으로 자원을 적게 가진 노인에게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Homans(1961)의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동등, 호혜 원칙에 따라 교환 가능한 자원과 사회제도와 문화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불평등한 교환자원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이론 (social activity theory)¹¹⁾은 노화에 따라 점차 비활동적이 되고 역할이 감소하여 대안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역할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유용하다고하는 이론으로서 노후 생활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신덕·김종숙, 1983).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노년기에는 활동수준을 줄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노인이라하면 사회의 상호작용과정에 참여하는 대신 물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며(Cumming, 1961), 역할변화의 과정을 당연시하여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럽고 유익한 현상임과 동시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Bell, 1976). 이승신(2013)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이슈로 ‘노후준비’에 주목을 하면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도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체적 건강상태,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배우자 유무, 경제적 독립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등재 여부, 거주지역, 가계 총소득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숙·서경현(2002)의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노인들은 수입이 낮고,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고 있는 경우, 생활 활동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적인 물론 신체적 등에 대한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 후 생활만족이 높아진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1) 비공식적 활동, 형식적인 활동, 단독적인 활동을 말함.

5) 재무교육(상담, 설계)과 은퇴준비

최근 한 여론조사¹²⁾에 따르면 향후 노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체 72%가 노후자금을 잘 준비해서 혼자 살 생각이라고 응답하였고 2013년 사회조사에서는 72.9%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방법이 52.5%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은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2011)에서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 스스로'가 55.0%,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가 1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자립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제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는 17.9%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가구주의 경우 그 이유가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 49.7%이며 특히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 가구주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58.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¹³⁾ 최근 들어 실시된 조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퇴준비를 하고 있거나 되어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구체적인 은퇴준비 방법에 관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오종운 외, 2014). 여운경(2005)에 의하면 현대사회로 올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계획에 대한 재무적 책임이 정부나 기업보다 개인이나 가계에 더 많이 부가하는 것이 추세이며, 저출산 고령화 및 공적연금의 부실화, 노후의 빈곤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가 최근 재무설계 중에서도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강신기, 2013).

6) 재무교육(상담, 설계)과 은퇴 후 생활만족

김미리·조향숙(2014)는 가계의 주 금융자산 관리자의 금융지식 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금융상품 선호성향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 가계 주금융자산 관리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개인연금, 저축성보험의 순이며 금융지식에 따라 금융상품 선호성향을 살펴본 결과 금융지식이 높은 집단은 주식 직접투자를, 금융지식이 낮은 집단은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지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금융상품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위험자산을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자산배분과 은퇴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모색된다. 아울러 가계 주 금융자산관리자의 라이프스타일, 금융상품 선호성향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금융지식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금융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경로

12)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49세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6.24.)

13) 201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2013.12.4.)

간 차이가 있는 경로는 '라이프스타일 → 금융상품 선호 펀드/직접투자선호'와 '펀드/직접투자선호 → 재정만족도'로 나타났다. 복잡해지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금융상품을 노후생활을 위하여 선택함에 있어서 금융지식 등의 습득을 위한 재무교육이 향후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금융지식의 다소에 따라 경로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지식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교육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만족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중윤·최현자·이지영(2014)은 은퇴설계에 적용할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설계상담 이전과 재무설계상담이 진행되고 평균 약 14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관적 및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은퇴와 관련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로 구성된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은 재무설계상담 이후에 각각의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재무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무설계상담이 은퇴설계의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 개인별 차이와 변인간의 영향력

성별과 결혼유무와 관련해서 최혜련(2011)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 노후준비를 높게 인식하고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고 최정숙(2007)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손덕순(200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체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추용 외(2009)는 중년층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은퇴준비가 부족하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은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철(2012)은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연령, 학력, 종교, 거주지 유무, 현재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임경자, 2002; 이정화, 2009)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재덕, 2013).

주택소유 유무와 관련하여 유지정(2009)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에서 주택연금 적용 전과 적용 후의 빈곤갭을 연구하였으며 그 변화를 분석하여 소득증가효과의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은퇴시기에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음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여부는 은퇴준비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¹⁴⁾ 주택가격이 3억원인 일반주택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822,000원¹⁵⁾을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

14) 2014년 1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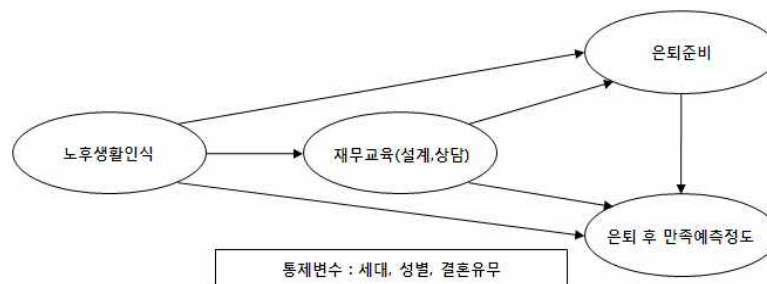
15) 종신폭지급방식, 정액형의 경우를 예시함

유한 경우보다 은퇴준비를 위하여 그만큼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제시

재무교육을 통하여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를 살펴보는 연구 모형이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먼저 박창제(2011), 손주영(2006), 강유진(2005), 광인숙·홍성희·이경희(2007), 김남순(2009), 백은영(2011), 박정식(2010)과 배문조(2005) 등의 연구에서 밝힌 은퇴인식 및 노후생활 인식수준과 재무상태 간의 영향관계를 참조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상담, 설계)의 인식이 높을 것이다.

H2.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을 것이다.

H3.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은퇴준비와 삶의 만족 또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택호(2010), 백은영·정순희(2012), 안창희(2006), 주소현(2008),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한경혜·김주현·백옥미(2012), 오병철(2012), 오종운(2011), 오종운·최현자·이지영(2014), 조천수(2011), 강정애(2013), 김주성(2010)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H4. 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 설계)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H5. 직장인의 재무설계, 교육과 상담의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

이다.

H6.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은퇴관련 인식과 준비상태, 재무교육 인식에 대한 은퇴예정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이정화(2009),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임창희(2004), 차승은·한경혜(2003), 정경희 외(2011), 정영자(201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H7.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성별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8.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결혼유무 상태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H9.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조사자의 개인적 특성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성별,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노후생활인식 측정도구는 경제적 노후준비 4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4문항, 사회적 노후준비 3문항으로 최종 11문항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무교육(상담, 설계)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재무교육(상담, 설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바 선행연구 중에서 안창희(2006)가 정의한 개념을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는 재무교육을 측정하기 위해 재무교육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과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정규 재무교육, 사설경제교육 프로그램¹⁶⁾, 직장에서 제공되는 재무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등 재무행동과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도구”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에서, 재무교육(상담, 설계) 측정도구로서 교육참여는 재무교육의 참여유무를 묻는 2문항, 교육방식은 재무교육프로그램의 유형, 재무교육시간, 재무교육방법, 재무교육매체 등을 묻는 6문항, 교육영역은 수입과 지출관리, 자산의 보존, 자산증대와 투자, 노후설계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사항으로 ‘재정, 주거준비’와 ‘경제활동준비’ 그리고 ‘건강관리’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작성하여 각각 3문항씩 모두 9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은퇴 만족예측정도 측정도구는 재무적 만족 10문항과 비재무적 만족 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6) 신문사, 은행, 재무컨설팅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개설한 개인재무 및 금융프로그램 등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자료 중 수집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편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¹⁷⁾ 배포된 설문지는 450장으로 배포방식은 e-mail과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직접 방문방식 등을 혼용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분석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0.0에서 코딩처리하여 분석할 것이며,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AMOS 18.0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기법으로서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빈도분석)를 실시한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기술통계에 의한 왜도, 첨도값을 조사한다. 넷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분석을 시행하며, 각 변인간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실시한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영향력의 조사대상자 개인적 특성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다.

IV. 분석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현황 및 재무교육에 대한 내용빈도 분석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02명 중 남자는 247명(61.4%), 여자는 155명(38.6%)이며, 연령은 20대가 54명(13.4%), 30대가 187명(46.5%), 40대가 109명(27.1%), 50대가 43명(10.7%), 60대가 9명(2.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중퇴졸이 2명(0.5%), 고등중퇴졸이 34명(8.5%), 대학중퇴졸이상인 366명(91.0%)이며, 주택소유는 자가 188명(46.8%), 전세가 130명(32.3%), 월세가 24명(6.0%), 기타가 60명(14.9%)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결혼여부의 경우는 미혼이 159명(39.6%),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227명(56.5%), 사별이 2명(0.5%), 이혼이 11명(2.7%), 별거가 3명(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17) 설문조사 기간은 1차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2차로 2014년 4월1일부터 4월 16일까지 걸쳐 실시하였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247	61.4
	여	155	38.6
연령	20대	54	13.4
	30대	187	46.5
	40대	109	27.1
	50대	43	10.7
	60대	9	2.2
학력	초중퇴졸	2	0.5
	고등중퇴졸	34	8.5
	대학중퇴졸이상	366	91.0
주택소유	자가	188	46.8
	전세	130	32.3
	월세	24	6.0
	기타	60	14.9
결혼여부	미혼	159	39.6
	유배우자	227	56.5
	사별	2	0.5
	이혼	11	2.7
	별거	3	0.7
합계		402	100.0

재무교육에 대한 내용의 빈도분석결과¹⁸⁾로서 재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은 257명(63.9%), 없는 사람이 145명(36.1%)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257명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교육을 받은 형태로는 직장 내에서 사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재무 및 금융교육이 95명(37.0%)으로 사설경제교육프로그램과 직장 내 교육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교육은 일회성이 대다수(68.5%)였으며 재무교육시간은 대부분이 5시간 이내(93.8%)를 차지하였다. 또한 재무교육의 횟수는 주로 5회 이내(74.3%)였고 재무교육에 대한 지속기간은 5일 이내(89.5%)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무교육의 지속형태는 일일 교육(58.0%)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는데 이를 종합해 볼 경우 재무교육을 대부분 5시간 이내의 짧은 일회성 교육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무교육의 영역의 경우 개인재무설계 기초를 비롯하여 다소 고르게 보이고 있으나 노후설계의 경우 재무교육을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 12.8%에 불과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은퇴와 관련한 사항이 당장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시급함이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재무교육경험에 대한 %는 전체 402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그 외는 재무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257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표 4-2> 재무교육에 대한 내용 빈도분석 결과

구분	내 용	빈도	%	구분	내 용	빈도	%
재무 교육 경험	예	257	63.9	재무 교육 방법	강의식	191	74.3
	아니오	145	36.1		토의식	12	4.7
	합계	402	100		협동식(팀학습)	2	0.8
재무 교육 형태	정부기관교육	12	4.7		컴퓨터시뮬레이션	12	4.7
	대학교교육	59	23.0		1:1상담	28	10.9
	시설경제교육프로그램	91	35.4		기타	12	4.7
	직장 내교육	95	37.0		합계	257	100
	합계	257	100	재무 교육 매체	인쇄매체	84	32.7
재무 교육 특성	일회성	176	68.5		시각매체	98	38.1
	정기적	71	27.6		시청각매체	15	5.8
	장기적	10	3.9		컴퓨터	38	14.8
	합계	257	100		기타	22	8.6
재무 교육 시간	5시간 이내	241	93.8		합계	257	100
	10시간 이내	14	5.4	재무 교육 강사	재무교육전문가(교수)	179	69.6
	10시간 이상	2	0.8		사회유명인사	11	4.3
	합계	257	100		기업임직원	31	12.1
재무 교육 횟수	5회 이내	191	74.3		관공서임직원	8	3.1
	10회 이내	24	9.3		기타	28	10.9
	20회 이내	28	10.9		합계	257	100
	40회 이내	6	2.3	재무 교육 영역	개인재무설계기초	94	36.6
	40회 이상	8	3.1		자금관리	28	10.9
	합계	257	100		지출관리	3	1.2
재무 교육 지속	5일 이내	230	89.5		대출 및 신용관리	10	3.9
	10일 이내	17	6.6		세금관리	15	5.8
	20일 이내	6	2.3		위험관리 및 보험	10	3.9
	20일 이상	4	1.6		금융상품투자	35	13.6
	합계	257	100		증권투자	12	4.7
	일	149	58.0		부동산투자	4	1.6
지속 형태	주	19	7.4		노후설계	33	12.8
	달	89	34.6		증여와 상속	13	5.1
	합계	257	100		합계	257	100

2. 확인적 요인분석(CFA)

1) 1차 CFA

각 측정도구의 구조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차 CFA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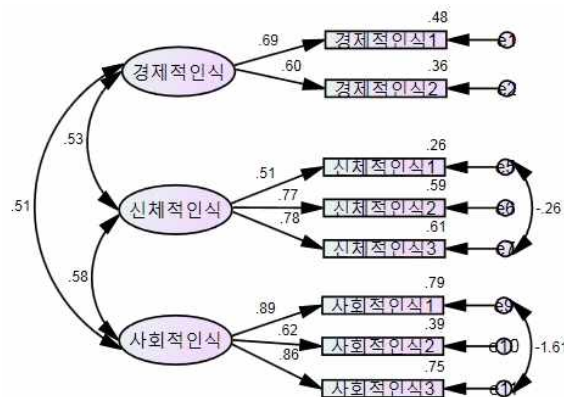
(1) 노후생활인식의 1차 CFA

노후생활인식 측정도구는 하위요인과 문항으로 경제적 노후생활 4문항, 신체적 노후생활 4문항, 사회적 노후생활 3문항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노후생활인식 1차 CFA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초	최종	
χ^2	-	237.142	35.464	-
df	-	41	15	-
χ^2/df	<3.0	5.784	2.364	적합
p	>.05	.000	.002	부적합 ¹⁹⁾
RMR	<.05	.048	.016	적합
GFI	>.90	.903	.978	적합
NFI	>.90	.792	.960	적합
IFI	>.90	.822	.976	적합
TLI	>.90	.758	.955	적합
CFI	>.90	.820	.976	적합
RMSEA ²⁰⁾	<.08 [*]	.109	.058	적합
	LO >.05	.096	.034	
	HI <.10	.123	.083	

최종 적합도는 $\chi^2=35.464(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RMR=.016, GFI=.978, NFI=.960, IFI=.976, TLI=.955, CFI=.976, RMSEA=.058(LO=.034, HI=.083)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²¹⁾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노후생활인식 1차 CFA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최종 모수치 추정과정에서 경제적 노후생활의 3번, 4번 문항과 신체적 노후생활의 4번 문항이 타당성이 낮아 제거되었으며, 신체적 인식의 1번↔3번 문항, 사회적 인식의 1번↔3번 문항간의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적합도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인식, 신체적 인식,

19) χ^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RMSEA 가<.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 (강병서·김계수, 2005).

21)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 0.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 0.40 이상이다. 그리고 ± 0.50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다.

사회적 인식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r>.51$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수치 추정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은 모두 요인에 대해 .60이상의 요인적 재량을 나타내었다.

(2) 재무교육의 1차 CFA

재무교육 측정도구는 하위요인과 문항으로 필요성 2문항, 경험수준 2문항, 실질적 결과품질²²⁾ 4문항, 감정적 과정품질²³⁾ 3문항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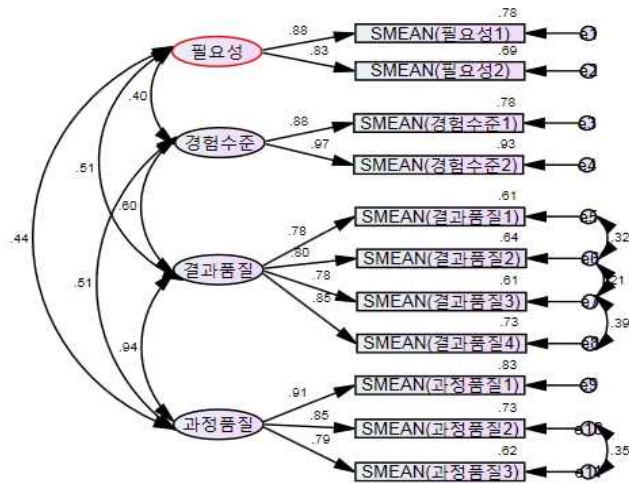
<표 4-4> 재무교육 1차 CFA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초	최종	
χ^2	-	234.338	125.034	-
df	-	38	34	-
χ^2/df	<3.0	6.167	3.677	부적합
p	>.05	.000	.000	부적합
RMR	<.05	.033	.027	적합
GFI	>.90	.902	.947	적합
NFI	>.90	.933	.964	적합
IFI	>.90	.943	.974	적합
TLI	>.90	.918	.957	적합
CFI	>.90	.943	.974	적합
RMSEA	<.08 [*]	.114	.082	적합
	LO >.05	.010	.067	
	HI <.10	.128	.097	

최종 적합도는 $\chi^2=125.034(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R=.027$, $GFI=.947$, $NFI=.964$, $IFI=.974$, $TLI=.957$, $CFI=.974$, $RMSEA=.082(LO=.067, HI=.097)$ 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은 바, 최종 모수치 추정과정에서 타당성이 낮아 제거된 문항은 없으며, 결과품질의 1번↔2번, 2번↔3번, 3번↔4번, 과정품질의 2번↔3번 문항 간에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적합도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필요성, 경험수준, 결과품질, 과정품질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r>.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수치 추정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은 모두 요인에 대해 .60이상의 요인적 재량을 나타내었다.

22) 재무교육을 받은 이후 은퇴생활을 위한 재무적 준비를 위한 결과

23) 재무교육을 받는 동안 개인별 재무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과정



<그림 4-2> 재무교육 1차 CFA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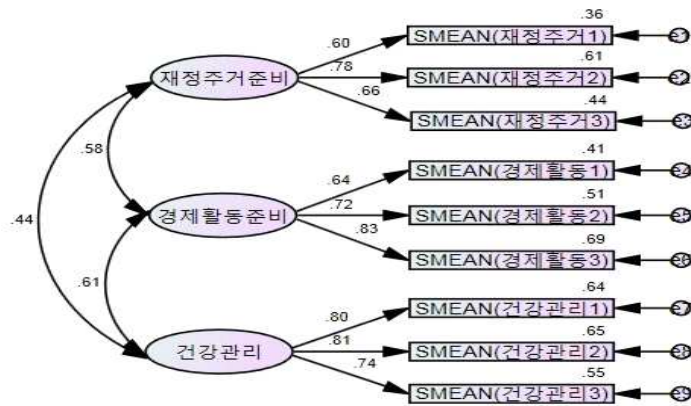
(3) 은퇴준비의 1차 CFA

은퇴준비 측정도구는 하위요인과 문항으로 재정주거준비 3문항, 경제활동준비 3문항, 건강관리 3문항 등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은퇴준비 1차 CFA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종	
χ^2	-	47.003	
df	-	24	
χ^2/df	<3.0	1.958	부적합
p	>.05	.003	부적합
RMR	<.05	.027	적합
GFI	>.90	.974	적합
NFI	>.90	.963	적합
IFI	>.90	.981	적합
TLI	>.90	.972	적합
CFI	>.90	.981	적합
RMSEA	<.08*	.049	적합
	LO >.05	.028	
	HI <.10	.069	

최종 적합도는 $\chi^2=47.003(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R=.027, GFI=.974, NFI=.963, IFI=.981, TLI=.972, CFI=.981, RMSEA=.049(LO=.028, HI=.069)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은퇴준비 1차 CFA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모수치 추정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은 모두 요인에 대해 .597이상의 요인적 재량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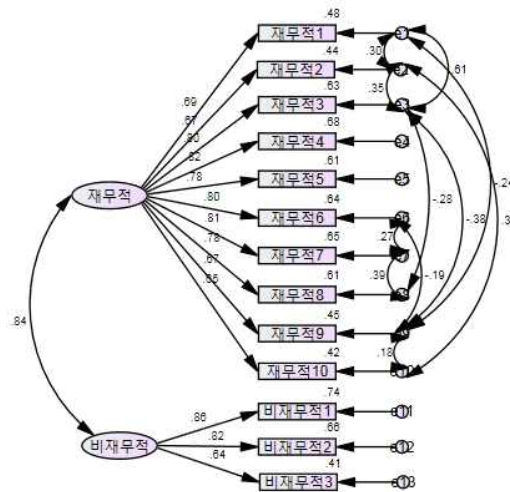
(4) 만족예측정도의 1차 CFA

만족예측정도 측정도구는 하위요인과 문항으로 재무적 만족 10문항과 비재무적 만족 3문항 등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만족예측정도 1차 CFA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초	최종	
χ^2	-	653.247	155.338	-
df	-	64	53	-
χ^2/df	<3.0	10.207	2.931	적합
p	>.05	.000	.000	부적합
RMR	<.05	.036	.019	적합
GFI	>.90	.804	.946	적합
NFI	>.90	.830	.959	적합
IFI	>.90	.844	.973	적합
TLI	>.90	.809	.960	적합
CFI	>.90	.843	.973	적합
RMSEA	<.08*	.152	.069	적합
	LO >.05	.141	.057	
	HI <.10	.162	.082	

최종 적합도는 $\chi^2=155.338(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R=.019, GFI=.946, NFI=.959, IFI=.973, TLI=.960, CFI=.973, RMSEA=.069(LO=.057, HI=.082)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만족예측정도 1차 CFA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최종 모수치 추정과정에서 타당성이 낮아 제거된 문항은 없으며, 재무적 만족의 1번↔2번, 2번↔3번, 1번↔3번, 1번↔9번, 2번↔10번, 3번↔8번, 3번↔9번, 6번↔7번, 7번↔8번, 6번↔9번, 9번↔10번 문항 간에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적합도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재무적, 비재무적 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r=.84$ 로 나타났다. 모수치 추정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은 모두 요인에 대해 .60이상의 요인적 재량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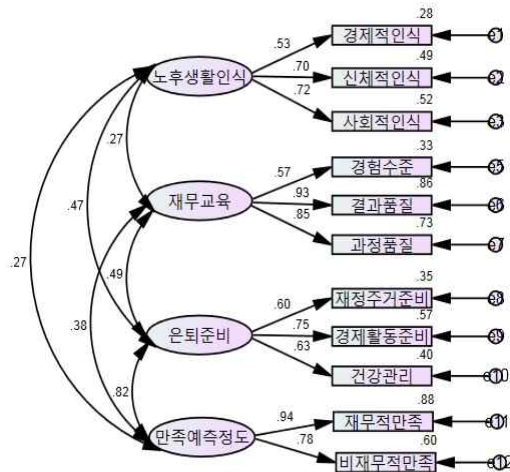
2) 측정모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노후생활인식, 재무교육,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이며, 각각의 1차 CFA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으로 변수계산을 실시한 후 측정모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측정모델분석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초	최종	
χ^2	-	204.532	142.151	-
df	-	48	38	-
χ^2/df	<3.0	4.261	3.741	부적합
p	>.05	.000	.000	부적합
RMR	<.05	.042	.041	적합
GFI	>.90	.921	.938	적합
NFI	>.90	.893	.919	적합
IFI	>.90	.916	.939	적합
TLI	>.90	.883	.911	적합
CFI	>.90	.915	.939	적합
RMSEA	<.08*	.090	.083	적합
	LO >.05	.078	.068	
	HI <.10	.103	.097	

최종 적합도는 $\chi^2=142.151(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R=.041, GFI=.938, NFI=.919, IFI=.939, TLI=.911, CFI=.939, RMSEA=.083(LO=.068, HI=.097)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측정모델분석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최종 모수치 추정과정에서 타당성이 낮아 제거된 요인은 없으며, 노후생활인식, 재무교육,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27$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수치 추정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은 모두 요인에 대해 .50이상의 요인적 재량을 나타내었다.

3. 신뢰도 분석

내적일관성 분석방법(cronbach's alpha)을 이용한 신뢰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신뢰도분석 결과

측정도구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노후생활인식	경제적 노후생활	4	.585
	신체적 노후생활	4	.668
	사회적 노후생활	3	.741
재무교육	필요성	2	.844
	경험수준	2	.920
	실질적 결과품질	4	.902
	감정적 과정품질	3	.906
은퇴준비	재정.주거준비	3	.712
	경제활동준비	3	.770
	건강관리	3	.825
만족예측정도	재무적 만족	10	.930
	비재무적 만족	3	.814

신뢰도 분석결과 노후생활인식의 경제적 노후생활, 신체적 노후생활, 사회적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의 필요성, 경험수준, 실질적 결과품질, 감정적 과정품질,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 경제활동준비, 건강관리,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 비재무적 만족 모두 cronbach's α >.58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 상관관계분석

<표 4-9>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후 생활인식	경제적인식	1											
	신체적인식	.371**	1										
	사회적인식	.391**	.502**	1									
재무교육	필요성	.302**	.273**	.268**	1								
	경험수준	.133**	.172**	.171**	.351**	1							
	결과품질	.153**	.144**	.172**	.435**	.530**	1						
	과정품질	.222**	.123*	.152**	.371**	.456**	.796**	1					
은퇴준비	재정주거준비	.159**	.136**	.197**	.051	.385**	.259**	.289**	1				
	경제활동준비	.134**	.259**	.246**	.195**	.396**	.343**	.358**	.457**	1			
	건강관리	.064	.323**	.241**	.205**	.216**	.221**	.184**	.346**	.488**	1		
만족 예측정도	재무적만족	.027	.216**	.192**	.145**	.391**	.335**	.282**	.492**	.567**	.481**	1	
	비재무적만족	-.028	.221**	.185**	.145**	.247**	.246**	.203**	.305**	.480**	.490**	.729**	1
M		4.198	4.384	4.485	3.908	2.624	3.312	3.228	3.035	2.776	3.401	2.789	3.235
SD		.714	.431	.480	.702	1.146	.742	.749	.726	.791	.722	.622	.623
skew		-.957	-.278	-.333	-.635	.379	-.670	-.487	.125	.078	.090	.400	.180
kurtosis		1.205	-.575	-1.046	.999	-.698	1.873	1.441	-.371	-.438	-.027	-.223	-.212
N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p<.05, **p<.01

상관관계 분석결과 노후생활인식의 경제적 인식은 재무교육의 필요성($r=.302$), 경험수준($r=.133$), 결과품질($r=.153$), 과정품질($r=.222$)과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159$), 경제활동준비($r=.134$)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체적 인식은 재무교육의 필요성($r=.273$), 경험수준($r=.172$), 결과품질($r=.144$), 과정품질($r=.123$)과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136$), 경제활동준비($r=.259$), 건강관리($r=.323$),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216$), 비재무적 만족($r=.221$)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재무교육의 필요성($r=.268$), 경험수준($r=.171$), 결과품질($r=.172$), 과정품질($r=.152$)과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197$), 경제활동준비($r=.246$), 건강관리($r=.241$),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192$), 비재무적 만족($r=.185$)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의 필요성은 은퇴준비의 경제활동준비($r=.195$), 건강관리($r=.205$),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145$), 비재무적 만족($r=.145$)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험수준은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385$), 경제활동준비($r=.396$), 건강관리($r=.216$),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391$), 비재무적 만족($r=.247$)에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결과품질은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259$), 경제활동준비($r=.343$), 건강관리($r=.221$),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335$), 비재무적 만족($r=.246$)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품질은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r=.289$), 경제활동준비($r=.358$), 건강관리($r=.184$),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282$), 비재무적 만족($r=.203$)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퇴준비의 재정주거준비는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492$), 비재무적 만족($r=.305$)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제활동준비는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567$), 비재무적 만족($r=.480$)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건강관리는 만족예측정도의 재무적 만족($r=.481$), 비재무적만족($r=.490$)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skew) < ± 2 , 첨도(kurtosis) < ± 4 로 나타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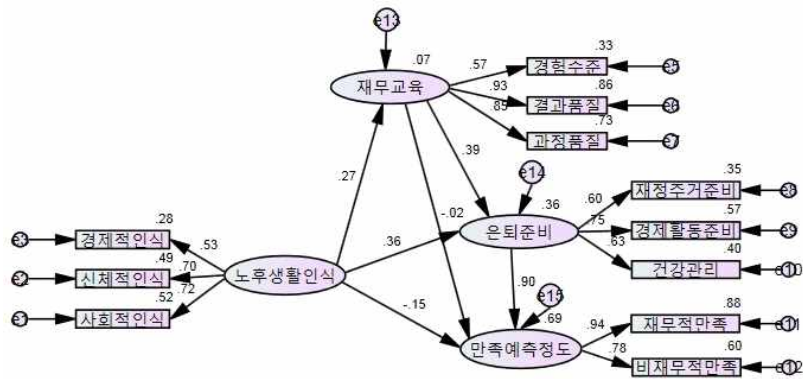
5. 구조모델의 모수치 추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 간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구조모델을 작성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4-10>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4-10> 구조모델의 적합도

구 분	기 준 값	최초	최종	
χ^2	-	204.532	142.151	-
df	-	48	38	-
χ^2/df	<3.0	4.261	3.741	부적합
p	>.05	.000	.000	부적합
RMR	<.05	.042	.041	적합
GFI	>.90	.921	.938	적합
NFI	>.90	.893	.919	적합
IFI	>.90	.916	.939	적합
TLI	>.90	.883	.911	적합
CFI	>.90	.915	.939	적합
RMSEA	<.08*	.090	.083	적합
	LO >.05	.078	.068	
	HI <.10	.103	.097	

최종 적합도는 $\chi^2=142.151(p<.001)$ 로 모델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델이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R=.041, GFI=.938, NFI=.919, IFI=.939, TLI=.911, CFI=.939, RMSEA=.083(LO=.068, HI=.097)로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 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6>과 <표 4-11>과 같다.



<그림 4-6> 구조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Standardized Estimates)

다만, 최종 모수치 추정과정에서 잠재변수의 측정변수에 대한 설명력(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이 0.222로 나타난 재무교육의 필요성은 기준치인 0.4보다 낮아 측정변수가 제거되었다.

<표 4-11> 구조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B	S.E.	C.R.	P	β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461	0.12	3.84	***	0.26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418	0.089	4.672	***	0.364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227	0.103	-2.209	0.027*	-0.147
재무교육	→ 은퇴준비	0.259	0.046	5.596	***	0.393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016	0.052	-0.307	0.759	-0.018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214	0.138	8.814	***	0.900

*p<.05, **p<.01, ***p<.001

모수치 추정 결과, 노후생활인식은 재무교육($\beta=.265$, $p=.000$)과 은퇴준비($\beta=.364$, $p=.000$)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만족예측정도($\beta=-.147$, $p=.027$)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재무교육은 은퇴준비($\beta=.393$, $p=.000$)에는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만족예측정도($\beta=-.018$, $p=.759$)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은퇴준비의 경우는 만족예측정도($\beta=.900$, $p=.000$)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H1(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상담, 설계)의 인식이 높을 것이다.), H2(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H4(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 설계)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H6(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으며, H3(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H5(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 설계)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는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을 통하여 은퇴준비를 보다 적극

적으로 할 경우에는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가 이루어짐이 없는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교육만으로는 은퇴에 대한 만족예측정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6. 총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 판단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과 은퇴준비, 은퇴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다음의 <표 4-12>과 같다.

<표 4-12> 총효과와 직·간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265	-	.26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364	.104*	.468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147	.417*	.270
재무교육	→	은퇴준비	.393	-	.393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18	.354*	.336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900	-	.900

*p<.05, **p<.01, ***p<.001

직접효과의 경우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재무교육과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으며, 재무교육의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 대한 만족예측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생활인식과 은퇴 만족예측정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즉 박정식(2010)과 배문조(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후생활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다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후생활인식수준과 은퇴 만족예측정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재무교육과 만족예측정도와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인 오병철(2012), 오종윤(2011), 오종윤·최현자·이지영(2014), 조천수(2011)의 연구결과인 재무교육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재무교육과 은퇴 만족예측정도 역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조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개념을 모두 고려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직접효과만을 분리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또한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상의 한계, 즉 설문지 조사 대상에 대한 한계로 인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직장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교육이나 재무상담 또는 재무설계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에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다소 재무교육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향후 은퇴 후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4-2> 재무교육에 대한 내용 빈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무교육의 형태가 사설경제교육프로그램과

직장 내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며 재무교육 횟수도 대체적으로 5시간 이내의 일회성 교육에 지나지 않아 김미리·조향숙(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회성의 재무교육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만족과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선행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재무교육이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모수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을 통해 은퇴준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104(p<.05)$ 이고,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417(p<.05)$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재무교육이 은퇴준비를 통해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354(p<.05)$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 영향력의 통계적인 유의미성 판단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해서 검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는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 은퇴준비 및 만족예측정도, 재무교육과 은퇴준비 및 만족예측정도 그리고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의 경우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만으로 은퇴준비를 직접 하는 것보다 재무교육을 통해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은퇴 만족예측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무교육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은퇴준비를 통할 경우에 은퇴 후 만족예측정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준비와 은퇴 만족예측정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다중집단분석

1) 성별간 차이

남자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과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과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만족예측정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표 4-13> 성별에 대한 구조모델의 다중집단분석 모수치 결과

			B	S.E.	C.R.	P	Label
남자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584	0.205	2.843	0.004**	par_12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662	0.182	3.643	***	par_10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039	0.151	-0.259	0.796	par_11
	재무교육	→ 은퇴준비	0.300	0.068	4.379	***	par_13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082	0.062	-1.325	0.185	par_9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128	0.140	8.043	***	par_8
여자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250	0.125	2.000	0.046*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148	0.064	2.316	0.021*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267	0.109	-2.447	0.014*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0.201	0.056	3.592	***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036	0.086	0.423	0.672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449	0.335	4.329	***	par_21

*p<.05, **p<.01, ***p<.001

두 모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의 Label의 교차되는 t값을 검정한 분석결과,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간의 모수차이(t=-2.67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14> 성별의 모수차이 결과

		집 단	Label	모수차이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남	par_12	-1.385
		여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남	par_10	-2.671***
		여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남	par_11	-1.221
		여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여	par_26	-1.117
		여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남	par_9	1.120
		여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남	par_8	.883
		여	par_21	

*p<.05 **p<.01 ***p<.001

그러므로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높아지는 결과는 남자에서 여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H7(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성별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결혼유무간 차이

미혼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혼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과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표 4-15> 결혼유무에 대한 구조모델의 다중집단분석 모수치 결과

			B	S.E.	C.R.	P	Label
미혼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181	0.187	0.972	0.331	par_12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459	0.158	2.908	0.004**	par_10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228	0.185	-1.234	0.217	par_11
	재무교육	→ 은퇴준비	0.281	0.079	3.575	***	par_13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12	0.095	1.272	0.203	par_9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0.959	0.191	5.011	***	par_8
기혼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671	0.188	3.569	***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353	0.126	2.799	0.005**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072	0.126	-0.571	0.568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0.267	0.059	4.486	***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093	0.062	-1.507	0.132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292	0.161	8.003	***	par_21

*p<.05, **p<.01, ***p<.001

두 모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혼과 기혼의 Label의 교차되는 t값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결혼유무의 모수차이 결과

		집 단	Label	모수차이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미혼	par_12	1.849
		기혼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미혼	par_10	-.526
		기혼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미혼	par_11	.698
		기혼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미혼	par_13	-.145
		기혼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미혼	par_9	-1.890
		기혼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미혼	par_8	1.331
		기혼	par_21	

*p<.05 **p<.01 ***p<.001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향관계의 경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과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교

육이 은퇴준비,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H8(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결혼유무 상태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3) 주택소유여부간 차이

주택소유자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무교육이 만족예측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택미소유자의 경우는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은퇴준비가 만족예측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표 4-17>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구조모델의 다중집단분석 모수치 결과

			B	S.E.	C.R.	P	Label
소유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815	0.178	4.574	***	par_12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498	0.127	3.922	***	par_10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497	0.163	-3.04	0.002**	par_11
	재무교육 → 은퇴준비		0.073	0.062	1.177	0.239	par_13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139	0.068	2.049	0.040*	par_9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433	0.194	7.396	***	par_8
미소유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0.029	0.162	-0.179	0.858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0.313	0.117	2.668	0.008**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0.189	0.211	-0.895	0.371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0.353	0.074	4.805	***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0.268	0.163	-1.639	0.101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1.889	0.433	4.365	***	par_21

*p<.05, **p<.01, ***p<.001

두 모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와 미소유자의 Label의 교차되는 t값을 검정한 분석결과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택소유자와 미소유자간의 모수차이($t=-3.506$)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인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무교육인식이 노후생활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주택소유자와 미소유자간의 모수차이($t=-2.29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무교육인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주택소유여부의 모수차이 결과

			집 단	Label	모수차이
노후생활인식	→	재무교육	소유	par_12	-3.506***
			미소유	par_2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	소유	par_10	-1.071
			미소유	par_23	
노후생활인식	→	만족예측정도	소유	par_11	1.156
			미소유	par_24	
재무교육	→	은퇴준비	소유	par_13	2.916***
			미소유	par_26	
재무교육	→	만족예측정도	소유	par_9	-2.299**
			미소유	par_22	
은퇴준비	→	만족예측정도	소유	par_8	.961
			미소유	par_21	

*p<.05 **p<.01 ***p<.001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H9(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 재무교육과 은퇴준비, 재무교육과 만족예측정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여부를 정리해 본 결과 H7의 부분채택은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차이이며, H9의 부분채택은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이다.

<표 4-19> 가설검증 결과

가설	내용	검증결과
H1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상담,설계)의 인식이 높을 것이다.	채택
H2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채택
H3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H4	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설계)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채택
H5	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설계)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H6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을수록 은퇴 만족예측정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H7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성별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8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결혼유무 상태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9	모든 변인간의 영향력은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V. 결 론

본 연구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예비은퇴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추구하는 대책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게 되었고,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은퇴의 인식과 은퇴준비, 노후생활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 중 재무설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세대 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와 근원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설계의 교육과 상담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영향력이 조사대상자인 직장인 개인적 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는 노후생활인식, 재무교육, 은퇴준비 및 만족예측정도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상담, 설계)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재무교육에 참여하거나 방식, 영역, 필요성, 경험, 결과와 과정품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인의 노후생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경제적 은퇴준비와 신체적 은퇴준비, 주거에 대한 은퇴준비의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직장인의 재무교육(상담, 설계)의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인이 재무교육에 참여하거나 방식, 영역, 필요성, 경험, 결과와 과정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경제적 은퇴준비와 신체적 은퇴준비, 주거에 대한 은퇴준비의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장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 대한 만족예측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인의 경제적 은퇴준비와 신체적 은퇴준비, 주거에 대한 은퇴준비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은퇴 후의 재무적 만족예측정도와 비재무적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노후생활인식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높아지는 결과는 남자에서 여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노후생활인식이 재무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생활인식이 높을수록 재무교육인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교육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미소유자에서 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덟째, 재무교육이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장인의 주택소유여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교육인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주택소유자에서 미소유자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가설검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장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재무교육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고, 노후생활과 재무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은퇴준비의 수준이 높아지며, 재무교육과 은퇴준비의 수준이 높을 때 은퇴 후의 만족예측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가 현 시대를 비추어 볼 때, 가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생활인식과 은퇴 준비 간의 관계에서 여자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 미소유자의 직장인이 소유자 보다 노후생활과 재무교육, 재무교육과 만족예측정도 간의 영향력이 더 높고, 재무교육과 은퇴준비 간의 영향력은 오히려 주택소유자가 영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재무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기 위한 의미와 은퇴준비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가 그것이다. 직장인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릴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인식과 현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장에서 이러한 교육과 홍보자료를 노출하게 하여 관심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은퇴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은퇴 후 생활의 만족예측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재무교육 역시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사보험회사나 금융회사의 재무설계사가 사적으로 재무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교육은 수요자가 필요할 때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욱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재무교육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직장에서의 재무교육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는 곧 직장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보람, 애사심을 키우게 하는 동기부여 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조직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장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의 제고전략이 필요하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은퇴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욱 민감하다. 그러므로 남자직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미소유자에 대한 재무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보다 더 안정된 노후준비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주택미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무교육 참여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5), “한국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
역사회생활과학회, 16(4). 159~174.
- 강신기(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
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애(2013), “은퇴 예정자의 은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은퇴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항공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인숙·홍성희·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 김남순(2009),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리·조향숙(2014),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금융상품 선호성향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금융지식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분석”,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eiw 7(2),
121-151.
- 김성령(2010).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후준비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2011), “저소득층가계의 재무문제와 재무상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지, 15(2), 147-17.
- 김주성(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Vol.42, no.7, 89-102.
- 배윤정·김기옥(2000), “정보사회의 소비자교육내용 체계화를 위한”, 소비자학연구 11(4), 63-84.
-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손상희(2004),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 서비스 연구”, 소비문화연구, 7(4), 101-127.
- 손주영(2006), “노인재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125-144.
- 송양민·우재룡(2014), 「100세시대 은퇴대사전」, 21세기북스.
- 안창희(2006),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연구”, 한국 노년학, 제25권, 제1호, 21-36.
- 오병철(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 직장인들의 퇴직태도, 노후준비,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 한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종윤·최현자·이지영(2014), "재무복지수준으로 측정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 - 은퇴설계에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49-171.

우재룡·민주영(2012), 「오늘부터 준비하는 행복한 100년 플랜」, 부크온.

유인순(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 사회,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신(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5권 제4호, 43-61.

이정화(2009), "광주 ·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 275-289.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정(2005),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 관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Vol. 25, no. 2, 115-139.

주소현·조영란(2012),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1), 1-20.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6, 149-163, 한국가정관리학회.

최신덕·김종숙(1983),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한국 노동 연구원 고용보험연구 기획단.

최인근(2008),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자(2010),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 2000~2009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2), 41-64.

최혜련(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춘광(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4, 201-224.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193-207.
- Andrew,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utrica, Barbara A., Howard M. Iams, and Karen E. Smith, It All Relative: Understanding the Retirement Prospects of Baby Boomers (Chestnut Hill, Mass.: 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November 2003), available at www.bc.edu/centers/crr/papers/wp_2003-21.pdf.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15-448.
- Miller, S.(1965), The Social Dilemma of Aging Leisure Participant in W.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itt, Lois (2000). Personal Finance and the Rush to Competence: Financial Literacy in the U.S., A National Field Study Commissioned and Supported by The Fannie Mae Foundation, Institute for Socio-Financial Studies, Middleburg, VA.

Effect of Perception on the Aged Life and Financial Education of Workers on Provision for Retirement and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

Kim, Jong Mo²⁴⁾

Abstract

It is foreseen that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 generation started in 2010, so called 'retirement ebb', may affect individual workers, enterprises and a nation in diverse aspects since a huge population group retires to be included in the aged.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thought to be meaningful to study retirement and the related subjects. It was found in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retirement that financial designing was the core subject of those studies on perception level toward retirement, provision for it or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ith after-retirement life. When the preceding researches are reviewed in the view points of perception level toward the aged life, provision for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with after-retirement life of the workers preparing for retirement, it is revealed that most study suggest various methods and activities such as recreation, property management, family relationship or psychological stabilization for satisfactory life of the aged life. It is needed, however, to compare with results between the generations in terms of research target, to apply diversified factors and to consider basic issues in research methods as the preceding researches acknowledge of themselves their limitation in their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for how general workers' perception toward after-retirement life and finance education (consulting and designing) affect their provision for retirement and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 with after-retirement life by means of applying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d, in particular, examine if there are any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dividual workers of research target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alysi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by using the measuring instrument collected and found in preceding researches and 4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average office workers in Seoul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one of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Hypothesis suggest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descriptive was applied to the data earned from 402 responses, excluded 48 defected ones from 450, by applying SPSS 200 program, and evaluati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and correlation between

24) Wealth Management Center Wealth Manager, Prudential Insurance Co., Ltd

test variabl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s well.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a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office workers' perception toward the aged life,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financial education (consulting and designing).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the aged life,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provision for after-retirement life.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financial education (consulting and designing),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provision for retirement. Fourth,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provision for retirement, the higher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Fifth, impact that perception toward aged life affects provision for retire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sex of office workers. The tendency that the provision for retirement turns to be higher a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the aged life turns to be higher is distinctive in female than in male. Sixth, impact that the perception toward the aged life affects financial education varies depending on house ownership. It is more distinctive in house owner group than in non owner one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financial education turns to be higher a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the life of the aged becomes higher. Seventh, impact that financial education exerts to provision for retirement varies depending on house ownership. It is more distinctive in house owner group than non owner one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financial education turns to be higher a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provision for retirement becomes higher. Eighth, impact that financial education affects expected satisfaction varies depending on house ownership. It is more distinctive in house owner group than in non owner one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expected satisfaction turns to be higher a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financial education becomes higher.

Based on these results, what this study suggests is firstly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life of the aged of the workers facing retirement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secure a happy life in old age and satisfactory quality of it, secondly that financial education is needed so that they try harder to prepare for their after-retirement life and to raise the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 and lastly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personalized strategies to increase the level of workers' perception toward the aged life and financial education after identifying the level of individual workers. There are, however,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research target was limited to the workers living in Seoul and research variables were also limited to such four factors as perception level toward the aged life, financial education, provision for retirement and the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Key works : Effect of Perception on the Aged Life, Financial Education, Provision for Retirement, Degree of Expected Satisfaction